

태양광·풍력 인허가 내주고 수익금 주민에 연금 형태로 지급

대통령이 주목한 신안군 햇빛연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은 주민에게 연간 최대 270여만원이 지급되는 이익 공유제 모델이다.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을 확보해 전력 판매 요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발전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민수용성을 이익 공유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대한민국 국토 서남쪽 끝에 위치한 지역 소멸위기의 지역을 ‘사람이 돌아오는 곳’으로 탈바꿈 시켰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한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한 이유다.

신안군의 햇빛, 바람연금의 수혜자만도 2만 4096명으로 신안군 전체 주민(3만8000여명)의 63% 수준이다. 햇빛연금 외에도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입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햇빛아동수당’, 연 7.5% 이율의 ‘햇빛 장학적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신안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안에 부는 바람과 내리쬐는 햇빛만으로 모든 주민이 연간 3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은 단순한 주민 이익 창출을 넘어 인구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1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햇빛연금의 실효탄을 쫓았다.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거나 순이익의 30%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반발과 이익을

주민에 연간 최대 270만원 지급 수혜자 2만4096명 주민의 63% 소멸위기서 사람 돌아오는 곳으로 군민펀드 등 이익 공유 사업 추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기도 했다.

조례제정으로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햇빛연금의 누적 지급액은 304억원을 돌파했다.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19번에 걸쳐 수익금을 배분받았다. 한 가구에 분기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됐는데, 연간 840만원에 달한다. 사육도 주민들도 15회에 걸쳐, 분기당 최대 378만원을 받았다.

신안군은 또 햇빛연금에서 제외되는 지역민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22년 햇빛아동수당과 햇빛 장학적금을 출시했다. 조례를 만들어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들어올 경우 수익금의 50%를 아동수당과 장학적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의 반발도 있었지만, 신안군의 적극적인 설득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햇빛 장학적금은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할 경우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안 청년들이 신안을 떠나며 집이 필요할 때 이 적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추진했다.

햇빛연금, 아동수당, 장학적금 등 파격적인 정책은 인구 중대를 불러왔다. 2022년까지 출생 감소하던 신안군 인구는 2023년, 전년 대비 179명이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36명이 늘어났고, 올해 9월까지의 무려 710명이 물려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었다. 특히 비교적 많은 햇빛연금이 지급되는 마을에 더욱 많은 주민이 전입을 신고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의 재원이 되는 설비용량은 849MW(메가와트) 수준. 신안군은 신의면과 증도면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오는 2026년까지 태양광 설비

를 1.8GW(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도 오는 2030년까지 8.2GW까지 대폭 늘린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여억원의 주민소득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연간 600만원 수준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익 공유는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인구중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이룬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신안군은 추후 해상풍력을 활용한 군민펀드 사업 등 다양한 이익 공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태양광 발전수익 공유 ‘햇빛소득마을’ 전국에 500곳 만든다

내년 국비 5500억원 투입

마을 내 농지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창출한 수입을 마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희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으로 구성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그간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며 햇빛 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를 두고 주민 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환경청, 지역별 유관기관 등과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기준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

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농협,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들도 정책자금 취급 기관으로 참여해 마을공동체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주민의 자부담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창업과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국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마을 3만8000여 개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약 5500억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호남에는 왜 카지노 없냐”

광주·전남 외국인 상대 카지노 설립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는 왜 카지노가 없냐”고 발언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호남지역을 특정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 외국인 대상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으로부터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취영 문화부 장관에게 이 같이 물었다.

외국인 상대 카지노는 외국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관광도시의 필수적인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인허가가 까다로운 데다 일종의 ‘특허’로 볼 수 있어 쉽사리 유치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내법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 설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거액의 투자를 선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여수 경도 개발을 통해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최취영 문화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전남에서 카지노 개설을 신청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교육발전특구×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고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 인재를 육성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고교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로! 보건계의 내일을 여는 글로벌 대학



기독교간호대학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실무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독교간호인재 양성 대학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미래를 여는 한 걸음! 대학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동강대학교

DONGGANG UNIVERSITY

특성하고 진로, 동강대에서 키워 지역 정주로 완성하다



서영대학교

고교와 대학을 잇다, 서영대가 만드는 미래형 인재의 길



조선간호대학

CHOSUN NURSING COLLEGE

나의 간호 꿈, 고교에서 미리 준비하고 조선간호대학교에서 완성해요



조선이공대학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빛고를 미래인재 양성 통합 직업교육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기술인재, 고교에서부터 키웁니다!